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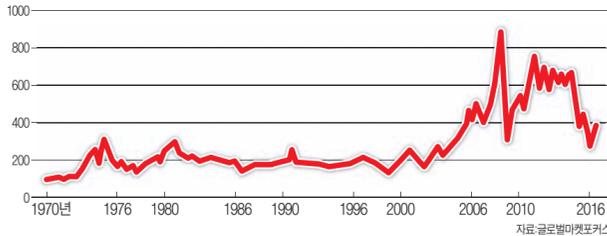
Let's Master 원자재 시장 6월 제3차 산업혁명과 원자재

제조업 강타한 '3차 산업혁명' 원자재 시장 질적 변화 대비해야

“인터넷 기술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융합해 세계를 변화시킬 제3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리프킨은 이 책에서 최근 현대산업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 즉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 고갈 및 기후변화라는 인류 생존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가 주장한 3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크게 두 가지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공유인터그리드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분권적이고 수평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과거 두 번의 산업혁명과 뚜렷이 대비된다.



S&P 골드만삭스 원자재지수



1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 석탄이란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방직산업으로부터 시작된 기계화, 자동화가 출현하게 된 것을 말한다. 20세기 초 나타난 2차 산업혁명은 석유를 기반으로 한 공장의 전력 공급과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발전 및 TV 등에 따른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창출도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철강과 구리 등 원자재가 동원됐다. 그러나 원자재는 한정된 장소에 매몰돼 있어 배타적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자원은 생산부터 유통, 관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원은 소수만이 독점하게 되고, 이는 자원의 수직적 중앙집권화를 야기했다. 이는 자원의 고갈 및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제3차 산업혁명이다.

ICT-재생에너지 융합 따른 제조업의 새로운 변화에도 원자재 수요 증가는 불가피

대체투자재로 바뀐 원자재 위험관리 등 전문적 대응 필요

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원자재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변화 속도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원자재시장의 '수퍼사이클' 논란에서도 잘 드러난다. 원자재 값 급등을 의미하는 수퍼사이클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20년 주기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이 경제 성장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자재투

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의 《원자재시장에 투자하라》는 책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원자재 수퍼사이클은 대략적으로 전쟁 시기, 도시화 혹은 산업화 시기와 일치한다. 그는 이 책에서 최근의 원자재 수퍼사이클은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201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견했다. 그 배경의 주인공은 중국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 부진으로 원자재 값이 폭락하는 소위 '수퍼 다운 사이클'이 나타나면서 수퍼사이클은 종식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의 물결도 한몫하고 있다.

올해 초 투자자문사인 샌포드 앤드 번스타인은 유가전망보고서를 통해 “2030~2035년 석유 수요량이 다시 절정에 달하는 슈퍼 사이클이 닥칠 것”이라며 “다시 석유 공급량이 달리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70년 대처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 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이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

발에 힘을 쏟고 있으나 그 효과는 20~30년이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 전망이다.

시계를 돌려 1990년대 말로 가보자. 당시 세계는 소위 무선통신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 붐으로 제조업 부문은 '구경제'로 취급되던 시절이었다. 이 같은 생각을 반영해 원자재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감소했다. 많은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반전의 모멘텀이 됐다.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다. 원자재는 대표적인 가격 비탄력적 상품이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단기적으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원자재 개발은 많은 시간과 자본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중반에 사상 유례없는 수퍼사이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구경제의 복수'란 말도 생겼다.

원자재 시장은 1970년대 이후 두 번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하나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해 수많은 원자재들이 거래소에 상장됐다. 원유와 니켈, 주석 등이 1980년대를 전후해 시장에 등장한 원자재다. 두 번째 변화는 2000년대 이뤄졌다.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는 단순한 생산요소에서 대체투자재로서의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자재 선물들이 등장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권 등이 시장에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원자재 시장의 머니마켓화다.

원자재시장은 3차 산업혁명으로 또한 한 번의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 플레이어들이 분권화될수록 시장은 중앙집권화된다. 미국 선물거래소 CME와 대륙간거래소 ICE 등 최근 원자재시장의 인수합병에 다른 대형화가 그 예다. 3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지구환경 개선이 아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이다. 3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제조업 물결이 확산될수록 원자재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원자재 시장의 질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낮은 경제가 또다시 복수심에 몰리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문용주 글로벌마켓포커스 대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6기 과정 수료식

한국경제신문 교육전문부서인 한경아카데미는 최근 서울 중림동 본사 강의실에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6기 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 19명은 지난 4월부터 352시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소화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의 실무 역량을 쌓았다. 주요 교

육내용은 국제의료관광 서비스 실무, 마케팅, 선진 사례 벤치마킹, 임상실무, 실무어학 등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 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과정은 전액 국비지원 프로그램으로 소화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의 실무 역량을 쌓았다. 주요 교

비즈니스 교육·연수 단신

일반 경비원 신규취업을 위한 교육

한경아카데미는 경찰청으로부터 일반경비원 신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경비원 신규 채용 시 경비업자는 현장 배치 전까지 신입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경비원 취업을 원하는 개인도 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8월 교육은 8~10일, 22~24일, 29~31일까지 3회차에 걸쳐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3층에서 열린다. 교육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시간 (3일) 진행된다. 교육비는 13만 원이며 점심과 주차, 교재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저수익 체질개선과 성장전략

한경아카데미는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역삼동 대아빌딩 한경아카데미 강남캠퍼스에서 이원훈 미래경영전략연구소장을 초청, '중소기업 저수익 체질개선과 성장전략 기획과정'을 연다.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서는 경영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방안, 저수익 체질 유발 주요 원인 진단과 대응전략 예연설, 자사 저수익 체질 진단과 대응방안 도출, 성장 매트릭스 분석과 성장기회 탐색, 신규 진출 가능한 분야 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 성장전략 개발 프로세스와 주요 내용, 자사 환경분석과 단기 중기 성장 전략개발 등을 소개한다. 중·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대상이며, 신청순 24명만 신청받는다. 수강생에게는 교재와 워크북, 점심, 수료증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9월5일부터 7일까지는 부산 동구에서도 열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 참조.

노동법 위반 책임과 대응방안

기업이 지켜야 하는 22가지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행정적 책임 해설과정이 개설된다. 한경아카데미는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3층에서 김광욱 노무사를 초청, '노동 리스크 해결과 예방-노동법 위반 책임과 대응방안' 해설과정을 연다. 노동 리스크 해결 및 예방 역량이 필요한 인사 노무 담당자와 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 노력이 필요한 최고경영자(CEO)·임원·관리자, 노동법 위반 시 책임과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알고 싶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노동법 위반 시 근로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에 대한 기업 내 해결 프로세스 구축과 노동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노동쟁송 절차에 따른 실무 포인트와 활용, 근로계약·인사권·징계권 해고·저성급과 퇴출·근로시간·통상임금·임금피크제·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쟁점을 둘러싼 분쟁 해결 및 예방 가이드 등으로 구성된다. 2016년 실무노동법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 교육비는 30만원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

대리, 과장, 차장 등 직급이 오를수록 책임과 권한의 크기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 한경아카데미는 8월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초급간부 승진 대상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 과정을 개설한다. 커리큘럼은 기업재무의 개요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자료, 손익관리를 위한 원가분석, 투자경제성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강영수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교육비 30만원. 자세한 내용은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 참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프리미엄 e러닝

Restart Campaign Season 7

사이버연수원

- 온라인 교육수강
- 학점 관리
- 성과 관리
- 교육 결과 관리

역량진단평가

- 공통 역량
- 리더십 역량
- 직무 역량
- 창조 혁신 역량

350여 개 프로그램

- 직무 200여 개
- 외국어 100여 개
- 인문/교양 50여 개

✓ 중소기업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교육캠페인
 ✓ 전사원이 1인당 12만원으로 1년동안 350여개의 교육 콘텐츠를 무제한 학습

Restart 한국경제 교육캠페인 02)360-4880 choiseoji@hankyung.com